

<총평>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실시된 9급 시험중 제법 난이도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활용하여 체감 난이도를 높여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개 학생들과 상담해보니 1, 8, 16, 20번이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자세히 문제를 분석하면 정답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천 늑도 유적지는 제가 이론 수업때 '개빠다귀'를 말하며 언급했던 지역이지요. 여러분의 흥미유발을 위해 던지는 시사성 있는 이야기에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16년 늑도 관련 전시회가 성황리에 있었고, 시사성을 반영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틀린 문제 중심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국가직에 대비합시다!

만점을 향한 한번의 집중! —中 한국사! 정민혁!

1. 다음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화폐가 출토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 ③ 단양 수양개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홍수아이'라 부른다.
- ④ 울주 반구대에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1. ① 시사성 있는 문제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은 2016년 7-8월 늑도 유적 발굴 30주년을 맞아 국제무역향으로서 늑도, 또 2000년 전 늑도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을 열었다. '국제무역향 늑도와 하루노쓰지'전이다. 출제자는 여기에서 출제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직 시험 문제가 제법 기존의 수험서에서 벗어나는 소재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경향이다.

경남 사천 늑도 유적은 1979년 발굴 시작. 하루노쓰지는 2000년 전 늑도와 함께 국제무역향 역할을 한 일본 규슈 이키섬 유적으로, 한반도계와 중국계 유물이 많이 출토됨. 2016년 전시회에서는 늑도 유물 1000여점과 하루노쓰지 유물 168점(이키시립 이키국박물관 소장)을 함께 선보였음. 늑도에서 출토된 일본 야요이 시대 토기들과 하루노쓰지에서 발굴된 한반도 토기들, 양쪽 유적에서 함께 나온 중국 동전 등이 나왔음. 고대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문화교류, 교역상의 실체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주거지 유적을 분석하면, 늑도 주민들은 아궁이와 온돌이 있는 움집에서 생활. 또 5000여점에 이르는 동물뼈가 발견됐는데 그 중 83% 정도가 사슴뼈. 당시 늑도에 사슴이 많았고 주민들

은 사슴을 즐겨 먹었으며, 그 뼈로 뼈바늘이나 방추차(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선사시대 방직술을 증명하는 유물)를 만들어 옷을 지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개빠도 많은데 그 뼈들이 마구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무덤을 만든 것처럼 고이 매장된 상태.** 지금의 애견처럼 개가 사람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줌. 또 중국 동전, 저울추 등 유물은 상업적인 거래가 이뤄졌음을 뜻하며, 돌로 된 벼루는 거래 내용 등을 기록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사적 제450호인 '사천 늑도 유적'(경남 사천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후 당시 고대 한·중·일의 국제적 문화교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유명.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발굴조사에서는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대의 각종 유물과 유구(인공적 시설물)들이 발견됨. 인골은 물론 토기류, 철기류, 주거지, 동전 등이 수만점에 이름. 늑도 유적이 고대 동아시아 역사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것은 토기 등 유물 중에 중국, 일본에서 제작된 것들이 있기 때문임. 중국 동전들도 많이 나옴. 이는 늑도가 2000년 전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교역중심지로 '국제무역향'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줌. 늑도는 청동기에서 삼한 시대로 이어지는 유적으로 중국계 경질 토기, 일본계 야요이 토기, 반량전, 오수전, 한나라 거울 등의 유물이 출토됨. 이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증거를 보여줌. 반량전은 중국 秦대의 청동제 화폐,

② 부산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일본산 흑요석기 출토로 당시 한-일간의 교류를 보여줌. 이 내용이 국가직 기출.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 가옥은 청동기 시대에 등장, 철기시대에 본격화.

③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는 석기 제작지가 발견되었고, 고래·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품, 이음도구의 원형인 스페르르개가 출토됨. 홍수 아이는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됨.

④ 고령 양전동(장기리)의 알터 바위그림이나 울주 천전리 바위그림에 대한 설명.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에는 고래, 거북, 사슴, 호랑이, 토끼 등이 새겨져 있음.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모습, 사냥하는 장면도 있음.

2.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라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원칙이며 회의의 의장은 상좌평이다.
- ② 백제는 관품 구별에 따라 자·단·비·녹색의 공복을 입었다.
- ③ 신라는 진덕여왕대 집사부와 창부를 통합해 정무기관인 품주를 설치하였다.
- ④ 국상, 대대로, 막리지 등은 고구려에서 재상의 직위를 지칭한다.

2. 정답 ④

고구려의 중앙 관제는 초기에 좌보·우보를 두었다가 2세기 고국천왕 때 국상(國相)으로 변화. 6세기 이후에는 대대로, 막리지 또는 대막리지가 수상으로 국정을 총괄함.

① 신라 화백회의의 의장은 상대등. 만장일치의 의결방법. 상좌평은 백제의 귀족합의체인 정사암 회의의 의장. ② 백제의

1 ~ 6관등은 자색, 7 ~ 11관등은 비색, 12 ~ 16관등은 청색을 착용. 고이왕때 6좌평 16관등제, 3색공복제 마련.
③ 품주: 진흥왕 때 설치. 진덕여왕때 국가 기밀을 관장하는 집사부와 재정을 담당하는 장부로 분리됨.

3.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제왕권을 견고케 할 것
- ② 전국의 재정은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
- 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
- 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3. 정답 ②

헌의 6조의 3조에서는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할 것을 주장하며 재정일원화를 추구. 예·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을 명시. 궁내부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광무개혁의 내용. 내장원의 설치는 2차 갑오개혁때. 내장원은 1895년 11월 내장사로 설치되어 1899년 8월 내장원이 되었고, 1905년에 경리원으로 이름을 바꿈. 그 후 1907년 경리원이 해체되면서 부동산은 국유화되었는데 동산 중 인삼세, 광산세 등 20여종의 세원은 탁지부와 농상공부로 이관됨. 염세, 수산세 등 7종의 세금과 식리전은 폐지, 이로써 황실 재산은 대부분 일본의 조선 강점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일제에게 빼앗김.

① 1조, ③ 4조, ④ 5조의 내용이다.

4.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일 ㉠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 빛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 임금 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 ① ㉠ 세자 - 북경에서 아담 살과 만나 교류하였다.
- ② ㉡ 포로 -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
- ③ ㉢ 관소 - 심양관은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④ ㉣ 임금 -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하였다.

4. 정답 ④

제시문은 1636년 병자호란 이후 ㉠ 소현세자, ㉡ 인조(1623

~ 1649)에 대한 글. 복수설치(復讐雪恥)를 기치로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적극 추진한 것은 효종(1649 ~ 1659) 때.

①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서양 선교사 아담 살 등과 교류하며 천문학과 천주교 서적 등을 접함.

② 병자호란 당시 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송환된 부녀자들을 칭하던 환향녀(還鄕女,=속환녀)에 대한 설명. 이들은 정절을 잃었다하며 가족으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음. 심지어는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는 사대부들이 매우 많았음.

③ 1637년 정축맹약: 병자호란 후 조선이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및 3정승 6판서의 자제들을 심양에 인질로 보냄.

심양의 세자와 대군이 머물던 처소 겸 집무소를 심양관(瀋陽館) 또는 심관(瀋館)이라 함. 심양관에 거주하였던 소현세자 일행은 인질의 신분이었지만, 조선과 청의 연락을 담당. 공물의 조정과 조선인 포로 문제 등 외교 업무도 수행.

5.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운봉을 넘어온 ~중략~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자는 70여 명 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에서 인용·요약

- ①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
- ② 조운선의 그들의 목표물이 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졌다.
- ③ 그들의 수괴인 대마도가 정벌되어 그 지체가 꺾이게 되었다.
- ④ 그들이 자주 출몰하자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 정답 ①

고려 말 왜구의 침입. '운봉'(남원)을 통해 1380년 이성계가 주도한 황산대첩임을 알 수 있음. '살아 도망간 자'는 왜구.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공민왕은 복주(안동)으로 피난, 정세운, 이방실, 안우 등은 개경 수복. 공민왕은 개경으로 환도 후 홍왕사에 머무. 부원배와 결탁한 김용은 1363년 공민왕 시해를 위한 '홍왕사의 변'을 일으켰고,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를 살해함. 사건 이후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강화됨.

② 고려 시대 왜구는 조운선을 약탈함. 조운은 사실상 폐지될 상황. 이에 대응하여 고려 정부는 내륙 운하 건설을 계획하기도 할 정도였음.

③ 왜구의 주요 근거지는 쓰시마·마쓰우라·이키 등 이었고, 1389년 창왕때 박위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함.

④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은 경상도부터 시작하여 전라도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고종때부터 왜구 침입 시작. 내륙까지 침입하게 되자 천도론이 제기됨.

6. 다음 중 성학집요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理)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② 신하는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③ 향약의 전국 시행, 수미법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 ④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사실기를 편찬했다.

6. ①

『성학집요』는 율곡 이이(1536 ~ 1584)의 저서.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이기일원론(일원론적 이기이원론)으로 발전시킴.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여 이(理)만의 독자적인 운동성을 부정. ‘이통기국론’을 통해 기의 차별성을 중시. 주자의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계승하여 이의 자발성과 독자성을 강조한 사상가는 퇴계 이황.

② 『성학집요』의 내용. 이황은 반대.

③ 이이는 해주 향약, 서원 향약 등을 통해 향약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공수미법을 주장.
④ 이이는 화이론에 입각한 존화주의적 사관을 바탕으로 기사를 높이 존숭. 16세기 이후 성리학적 명분론의 확산과 삼한정통론 확립에 기여함.

7.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은?

- 1. 청·일 양국 군대는 4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동시 철병할 것
- 2. 청·일 양국은 조선국왕의 군대를 교전하여 자위할 수 있게 하되, 외국무관 1인 내지 여러 명을 채용하고 두 나라의 무관은 조선에 파견하지 않을 것
- 3. 장차 조선에서 변란이나 중대사로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출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문서로 조회하고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하여 잔류시키지 않을 것

- ① 한성 조약 ② 제물포 조약
- ③ 시모노세키 조약 ④ 텐진 조약

7. 정답 ④

제시문은 텐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청·일 양국의 동시 철병과 향후 청과 대등한 일본의 동시 파병을 명시한 텐진 조약이 1885년에 체결됨.

- ① 한성조약은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과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이 명시됨.
- ②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함.
- ③ 청·일 전쟁의 결과 1895년 4월에 체결된 조약. 일본이 청

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았으나, 러-프-독의 삼국간섭으로 반환.

8. 다음은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메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노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달라도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게 하겠는가.

- ㉠ ① 한전 ㉡ ② 정전 여전
- ㉠ ③ 여전 ㉡ ④ 정전 균전

8. 정답 ④

정약용은 <전론(田論)>의 여전론(1798)을 통해 주나라의 정전제, 유형원의 균전제, 이익의 한전제를 모두 비판, 여전제를 제시함.

정전제(井田制)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산이나 계곡의 토지는 구획이 어렵고, 대지주들이 반대하고, 사전을 매입할 재정도 없으므로 반대.

훗날 그는 경세유표(1817)를 통해 여전제의 비현실성에 대한 반성 끝에, 현실적 개혁안으로서 정전제를 주장함. 이는 국가에서 사유농지를 유상 매입한 후 1/9를 공전(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용도)으로 만들자는 주장.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했을 것임.

균전제(均田制)는 토지와 인구를 정확히 계산해서 분배하는 방법. 그러나 당시 조성의 정황상 토지의 비옥도가 매우 이질적이고 호구의 증감이 많아 정확하고 균등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한전제(限田制)는 토지 소유욕을 억제할 수 없고, 지주들의 겸병으로 현실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에 반대함.

9. 조선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국정 개혁의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각 사절단의 파견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1차 수신사절 ㄴ. 보빙사
- ㄷ. 조사사찰단 ㄹ. 영선사
- ㅁ. 2차 수신사절

- ① ㄱ → ㄷ → ㄹ → ㅁ → ㄴ
 ② ㄱ → ㄹ → ㄷ → ㅁ → ㄴ
 ③ ㄱ → ㅁ → ㄷ → ㄹ → ㄴ
 ④ ㄱ → ㅁ → ㄹ → ㄷ → ㄴ

9. ③

㉠ 1876 ㉡ 1883 ㉢ 1881년 4월 ㉣ 1881년 9월 ㉤ 1880년.

10. 다음 지문이 가리키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의 기사를 폭넓게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의 일까지 기재하여 국중에 알리는 동시에 열국에까지 널리 알리기로 하고, 이름을 旬報라 하며...

- 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1883년 창간되었으며, 한문체로 발간된 관보의 성격을 띠었다.
 ②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내용에 따라 한글 또는 한문만을 쓰기도 하며 독자층을 넓혀나가고자 하였다.
 ③ 한글판, 영문판을 따로 출간하여 대중 계몽을 통한 근대화를 촉진하고, 외국인에게 조선의 실정을 제대로 홍보하여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④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일간지로 주로 유학자층의 계몽에 앞장섰다.

10. 정답 ①

제시문은 한성순보 창간사. ‘박문국’, ‘旬報’등을 통해 한성순보임을 파악할 수 있음. 한성순보는 3차 수신사로 다녀온 박영효가 박문국을 설치후 발행.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순한문으로 발행. 관보의 성격. 열흘마다 발행. 외국 문물을 소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는 역할. 1884년 갑신정변으로 폐간.

② 1886년에서 1888년까지 발행된 한성주보. 최초의 상업광고 게재.

③ 서재필이 1896.4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한글, 순 영문으로 간행. 격일지로 간행. 1896.7 독립협회 창설.

④ 남궁억이 발행한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 제국신문과 함께 의병투쟁에 대해 부정적.

11.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잡고 있었다.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인 (㉠), 궁중 실무 관리인 (㉡),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 등이 있었다.

- ㉠ ㉡ ㉢
 ① 잡류 역리 군반
 ② 남반 군반 역리
 ③ 잡류 남반 군반
 ④ 남반 군반 잡류

11. 정답 ③

고려 시대의 중류층을 묻는 문제.

후삼국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담당할 중류층이 형성됨.

중앙 관청의 실무를 담당할 서리, 이들중 말단 서리인 잡류.

궁중의 실무 관리인 남반(=형반).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할 향리.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인 군반.

지방의 역(驛)을 담당하는 역리.

12.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후한서 지리지, 관자나 산해경 등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
 ②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후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③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은 고조선에 망명해 와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④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 멸망했고, 이 지역에는 한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12. 정답 ②

②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기자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하여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간언하자 곧 그만두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 연나라가 왕을 칭한 것은 기원전 323년이였다. 곧 기원전 4세기 고조선이 연나라와 대등하게 대결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① 고조선을 언급한 중국 문헌: 관자(최초), 위략, 산해경, 전국책, 상서대전, 사기, 한서 등. 관자에는 고조선의 특산물, 산해경에는 고조선의 위치 언급.

③ bc 194 위만조선 성립

④ 손자 우거왕때 bc 108 한 무제의 침략. 고조선은 내분으로 멸망.

13. 다음 지문과 관계있는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폭력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노·매국적, 적의 일체시설물, 이 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하고 중상하는 자는 폭력으로써 대응할지니라.

- ① 1932년 1월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왕 히로히토를 저격하였다.
- ② 1932년 4월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제의 요인들을 폭살시키는 의거를 결행하였다.
- ③ 1920년 박재혁은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결행하였다.
- ④ 1926년 나석주는 식민지 대표 착취 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였다.

13. 정답 ④

제시문은 의열단의 강령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

④ 의열단원 나석주는 신채호가 제공한 폭탄 2개를 받아 휴대하고 인천항으로 단신 입국.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에 폭탄을 던짐. 일본인 7명을 총격 살상한 후 경찰대와의 교전 끝에 자결. 나석주의 의거는 임정의 지원을 받은 활동.

- ①, ② 이봉창과 윤봉길은 한민애국단 소속.
- ③ 밀양 경찰서 투탄 (1920.10): 의열단원은 최수봉. 부산 경찰서 투탄 (1920.9): 박재혁.

14. 다음 중 통일신라시대의 사회와 경제 관련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성덕왕대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③ 헌강왕대에 녹읍이 부활되고, 경덕왕대에 관료전이 폐지되었다.
- ④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4. 정답 ③

헌강왕(875~886)은 신라 49대 왕으로 875년에서 886년까지 재위. 이 무렵 당에서는 '황소의 난' 발생. 시험문제 꺼리다면 김헌창과 김범문의 난은 헌덕왕때이므로 구분을 요함.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월봉을 폐지하고 녹읍을 부활한 것은 경덕왕 16년(757). 이때 발해는 문왕.

① 신문왕(재위 681 ~ 692)은 687년 관료전을 지급, 689년 녹읍 폐지.

② 성덕왕(재위 702 ~ 737)은 722년에 정전(=민전) 지급.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④ 신라 촌락 문서에는 사해점촌, 살하지촌, 이름을 알 수 없는 모촌, 서원경 부근의 어느 현 등 4개 촌락의 내용을 기록. 한명의 촌주가 여러개의 촌을 관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5. 다음의 비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라총관 목극등은 국경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 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해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 ① 조선과 청의 대표는 현지 답사를 생략한 채 비를 세웠다.
- ② 토문강의 위치는 간도 귀속 문제와도 관련이 되었다.
- ③ 평경 지역 조선인의 산삼 채취나 사냥이 비 건립의 한 배경이었다.
- ④ 조선 숙종때 세워진 비석의 비문 내용이다.

15. 정답 ①

제시문은 1712년(숙종 38) 설립된 백두산정계비.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산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왕래하며 충돌을 빚자 청이 먼저 문제 제기. 특히 산삼이 많은 곳. 청나라의 오라총관 목극등과 조선의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 등이 실측 답사후 정계비 건립. 토문강 위치 해석 문제로 19세기에 간도 귀속문제 발생.

16. 조선시대의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세자는 궁 안의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 ②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 ③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설치되었다.
- ④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 되기도 하였다.

16. 정답 ②

성균관의 학생은 상재생과 기재생(하재생)으로 구분. 상재생은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학생. 기재생은 사부학당에서 승보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학생. 물론 소과 급제자가 우선적으로 입학. 그러나 소과에 합격해야만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림. 또한 문음을 통해서도 성균관 입학 가능.

① 조선의 왕세자는 원칙적으로 성균관 입학 절차를 거침.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함. 궁(宮) 안에 세자시강원을 두어 세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함. 세자가 아닌 대군의 교육은 대군사부(종9품)가 담당.

③ 시대에는 중앙에 국립 중등 교육기관으로 동학·서학·남학·중학의 4부 학당 설치. 북부는 제외. 4부 학당에는 문묘가 없음.

④ 조선의 유생은 사실상 군역이 면제됨. 향교에 들어가는 것은 양반 신분을 보증하고 군역을 기피하는 수단. 따라서 향교에 몰려드는 폐단을 야기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에는 교생낙강정군법<校生落講定軍法> 실시하여 향교에서는 일정 주기로 성적 시험을 치러 낙강생은 무조건 군역을 행하도록 함.

17.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가. 산림경제 | 나. 색경 |
| 다. 과농소초 | 라. 농가집성 |

- ① 가: 홍만선의 저술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가공 등을 망라하였다.
- ② 나: 박세당의 저술로 과수, 축산, 가후 등에 중점을 두었다.
- ③ 다: 정약용의 저술로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에 관하여 논하였다.
- ④ 라: 신숙의 저술로 이양법을 언급하였다.

17. 정답 ③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황해도 금천 연암골에서 생활하던 경험을 반영하여 저술한 농서. 중국 농법의 도입, 재래 농사기술의 개량을 주장. 더불어 박지원은 『한민명전의』를 통해 한전론(토지소유제한)의 토지 개혁안을 주장.

산림경제: 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洪萬選)이 엮은 농서 겸 가정생활서. 심신수련법, 주거와 주택 등등 농촌생활의 다양한 내용을 기록.

색경: 1676 경신환국 전의 서계 박세당의 저술. 穡(색): 거두다, 수확하다, 농사짓다의 의미.

농가집성: 효종때 신숙의 저술, 이양법에 대해 긍정적. 견종법의 보급에 기여.

18. 고려시대 귀족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7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 ② 귀족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사림 세력을 형성하였다.
- ③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 ④ 향리의 자제는 과거를 통하여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없었다.

18. 정답 ③

고려 시대에는 공신과 왕족의 후예,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제·서·질 등에게 무시함으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음서의 혜택을 부여. 또한 고려는 음서를 통해서도 제한 없이 고위 관직으로 진출 가능.

로 진출 가능.

- ① 5품 이상의 관료가 귀족의 주류를 형성. 음서와 공음전의 특혜를 누림.
- ② 고려 말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사림의 기원.
- ④ 고려 향리의 자제는 과거 응시 제한이 없음. 과거를 통해 중앙관료로 진출 가능. 주현공거법, 향공·진사제를 통해 알 수 있음.

19. 다음의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자치운동론의 등장에 대응하여, 민족해방운동의 단결과 통일적 대응을 모색하던 사회주의 진영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은 1926년 (㉠) 선언을 계기로, 1927년 1월 (㉡)를 발기하였다. 이어서 서울청년회계 사회주의자와 물산장려운동계열이 연합한 (㉢)외도 합동할 것을 결의, 마침내 2월 15일 YMCA 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 | | | |
|-------|-----|-----------|
| ㉠ 북풍회 | 정우회 | 고려 공산 청년회 |
| ㉡ 정우회 | 신간회 | 조선민흥회 |
| ㉢ 정우회 | 근우회 | 고려 공산 청년회 |
| ㉣ 북풍회 | 신간회 | 조선민흥회 |

19. 정답 ②

정우회 설립(1926. 4월) → 6·10 만세 운동(1926년 6월) → 조선 민흥회 결성(1926년 7월) → 정우회 선언(1926년 11월) → 신간회 창립 대회(1927년 2월).

정우회: 1926년 4월 14일 화요회·북풍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의 4단체 합동위원회가 발전적 해체하여 이룬 단체. 3차 조선공산당의 핵심인 안광천이 주도함. 4단체 합동위원회는 조선공산당 결성을 위한 조직정비를 목적으로 25년 4월 구성된 것. 김찬·김약수·김연의(金演義) 등 7명으로 이루어진 상무위원회를 두고, 합법 사상단체의 최고기관으로 자부. 화요회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 합동위원회가 26년 4월 발전적 해체를 하고 조직한 것이 정우회. 정우회는 26년 11월 <정우회선언>을 발표,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전환>을 선언. 통일전선체 형성을 위해 27년 2월 자진 해체.

조선민흥회: 조선물산장려회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서울청년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 신간회의 모태.

북풍회: 1924년 11.25. 서울에서 사회주의 연합 단체로 결성.

재일 한국인 사회주의단체인 북성회(北星會)의 국내지부로서 1924년 11월 25일에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운동단체. 북풍회라는 명칭은 '북풍이 한번 불게 되면 빈대나 모든 기생충이 날아가버린다.'는 속언에 근거한 것. 여기서 북풍은 마르크스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리키는 것. 당시의 국내 군소 단체를 북풍회의 위력으로 통일한다는 의미. 북풍회는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한일무산자계급(韓日無產者階級)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고려 공산 청년회: 1925년 4월 박헌영 주도로 비밀리에 조직된 공산주의 청년 동맹 조직. 김단야, 조봉암 참여. 6.10 만세

주도적으로 참여. 신간회 지회 설립운동에 적극 참여.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 여성단체. 김활란 중심의 여성계 민족 유일당 운동.

20.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ㄴ.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민주정부 협의 하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 ㄷ.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 ㄹ. 임시민주정부 수립

-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ㄱ → ㄴ

20. 정답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제안한 한국 정부 수립 방안:

- ㉠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 ㉡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제(諸)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 ㉢ 임시 민주 정부 수립후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 민주 정부의 신탁 통치 협정 작성 → ㉣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 협정 공동 심의.